

논문접수일 : 2012.09.14

심사일 : 2012.10.06

게재확정일 : 2012.10.27.

이상 시에 나타난 불안, 공포 이미지의 표현주의적 성격

-오감도 '시 제1호'를 중심으로-

Expressionistic Characteristics of Anxiety and Fear Images Appearing in Yi

Sang's Poems

-Focusing on 'Poem No. 1 in Ogamdo'-

주저자 : 이고은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강사

Lee Go-eun

Division of Design, Chung-Ang University

교신저자 : 김준교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Kim Jun-kyo

Division of Design, Chung-Ang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2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으로 연구되었습니다.

1. 서론

- 1.1. 연구내용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이상 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 2.1.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
- 2.2. 이상의 인격형성

3. 오감도 '시 제1호' 고찰과 표현주의의 특징

- 3.1. '시 제1호' 해석
- 3.2. 표현주의 배경과 특징

4. '시 제1호'에 나타난 표현주의

- 4.1. '시 제1호' 나타난 불안, 공포 이미지의 표현주의적 성격
- 4.2. 표현주의에 나타난 불안 공포 이미지
- 4.3 이상 시와 표현주의 작품분석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21세기 현대사회는 사회의 불안과 경제적 공황 속에 동시대인들이 느끼는 불안, 공포, 억압 등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모순된 삶에 노출되어있다.

이에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동시대의 비슷한 삶을 경험한 이상의 시를 분석하여, 미술사의 흐름 중 표현주의에서 이미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시각문화가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 과거의 역사로 치부되어 왔던 사건들을 통해 동시대를 바라보는 올바른 안목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불안과 공포상태에 나타난 시각표현의 상상적 동일화 과정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의 주관된 이미지라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상의 오감도는 이성적인 자아의 주체성이 붕괴되고 혼란을 겪으면서 1930년대 신문물의 과도한 노출을 통해 낯선 것의 출현이라는 새로움과 불안의 심미적 체험을 쓰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지나친 산업의 발전과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 식량난, 경제 불황, 자연재해, 과도한 무한경

쟁의 시대, 현대인의 우울, 병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동질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오감도 중 '시 제1호'의 '텍스트'를 해석하여 표현주의 회화에서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능동적 글 읽기를 유도하여 문학과 그림을 이해하는 유연한 사고력과 현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부여한다.

주제어

이상, 오감도, 표현주의

Abstract

Amid the social instability and economic panic of the moder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e anxiety, fear, and suppression that contemporaries feel are exposed to contradictory life of social policy pursuing welfare.

Therefore, this researcher intended to analyze the poems of Yi Sang who experienc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in the 1930s, the life similar to our contemporaries', and thereby try to find images on the poems from the perspective of expressionism, one of movements in art history. Such a trial was aimed at having a right view on the current time in the social phenomenon causing changes in our visual culture, by exploring the events that were regarded as the past history.

The imaginative unification process of visual expression appearing in anxiety and fear state is not able to be viewed simply as a subjective image of this contemporary researcher.

Yi Sang's Ogamdo was about aesthetic experience of the new and anxiety about appearance of something strange in the 1930s when, on one hand, his subjectivity of the rational self collapsed, and on the other hand, he was excessively exposed to new civilization. That feeling is similarly found in the current environments, such as the currently excessive development of industries,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science, food shortage, economic depression, natural disaster, infinite competition, depression of people of today, and their morbid stress.

This work was intended to translate the text of

Poem No. 1 in Ogamdo written by Yi Sang, and draw i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expressionism in the fine arts. In doing so, it can help induce people to read poems actively through visual images of poems and thereby give them flexible thinking power of understanding literature and paintings, and diverse views on the way of looking into the present time.

Key Words

Yi Sang, Ogamdo, Expressionism

1. 서론

1.1. 연구내용

이상의 시 오감도 중 '시 제1호'를 본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한다.

오감도는 1930년대 일제치하에서 신문명과 자신의 천재성에 기인한 시인의 전반적인 글쓰기가 고스란히 녹아들여진 작품이다. 이 중 시의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 제1호'가 제작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상의 인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완성된 그의 시 세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독자의 글 읽기에 대한 상상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 제1호'에 나타난 불안, 공포이미지와 표현주의와의 상관성을 밝히고 이상 탄생 100주년인 지난 후에도 그의 생애와 문학이 오늘날 사회현상과 맞물려 회자되는 것을 볼 때 이는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텍스트를 바라보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국문학과 어문학지에 실린 이상 관련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이상 문학 전반을 이해하고 그중 저서 '이상 전집 (2004, 가람기획)'의 오감도 중 '시 제1호'를 분석하기로 한다.

시대적 배경, 사회적 상황, 그에 따른 이상의 인격형성을 살펴보고, 오감도 중 '시 제1호'와 표현주의와의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시 제1호'에 나타난 불안, 공포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를 분석하고 시를 이해함으로써 현대로 이어지는 정신분석학적 측면의 접근을 통하여 위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를 표현주의 작품에서

찾아봄으로써 능동적인 글 읽기에 참여하는 독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상의 근거를 문학과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텍스트의 시각화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을 유도할 수 있다.

2. 이상 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2.1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

1910년에서 1920년 세계 예술 전반은 표현주의 영향 속에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많은 예술인에게 영감을 주었다. 표현주의는 기술복제로 예술조차 획일화되는 시대에 반기를 든 예술사조로 이성적 조작보다는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작가 개인의 내부에 깃든 생명, 즉 자아 또는 영혼의 주관적 표현을 중시하여 개인의 감정 표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윤수하, 2006)

근대화와 식민지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획일화되어가는 사회의 구조는 표현주의라는 예술사조로 발현되었으며 회화뿐 아니라 문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상은 1931년 <조선과 건축>에 일문시 '이상한 가역 반응'을 발표 (소설은 1930년 2월~12월 까지<조선>에 장편소설 '12월 2일'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으니 6년 정도가 활동시기의 전부이다. (정끝별, 2009)

이상은 근대화의 새로운 물결 안에서의 희망과 식민지라는 현실 아래서의 참혹한 불안을 다양한 색채와 언어로 표현하였다. 불안한 현실의 부정은 이상의 문학 속에 현학적 언어로 재탄생되어지고 식민치하의 조선에서 개인이 느끼는 역사적 자각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치닫게 된다.

이상이 1930년부터 1937년까지 남긴 시100여 편, 소설 16편, 수필, 평론, 잡문 등 50편을 합하여 약 180여 편의 작품들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작위적 언어 놀이를 통하여 현란하고 현학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면의 착잡한 풍경뿐이다. (김홍중, 2005)

근대 사회적 영향으로 신지식을 흡수한 이상은 엘리트였지만 식민지 치하 속에서 가난한 아버지를 떠나 큰 아버지 밑에서 양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형성된 심리적 영향이 그의 문학 전반에 깔리게 된다.

2.2. 이상의 인격형성

이상은 한일합방이 선포된 직후인 1910년 음력 8월 20일 경성부 사직동에서 태어나 1937년 4월 7일 (음력3월7일)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상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큰집에 입양되어 자라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큰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 철저히 혼자 버려지게 된다.

미술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던 이상은 큰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경성고등학교에서 건축과 기하학을 배우게 되고 상당한 재능을 보여주고, 건축과 수학에 대한 재능이 그가 발표된 시를 통하여 발현하게 된다.

이상은 회복 불가능한 폐병과 암울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절망적인 삶을 살다간 불운한 천재로써 그의 문학 전반에 불안과 우울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이 보여준 독창적 미학은 당대의 문화가 지닌 전환 논리에 대한 격렬한 예술적 반응이자 개별적 주체의식의 의식적 자기부정을 포괄하는 문화의 한 접점이었다.(한상철, 2006)

가족에게 버려진 고독감과 가난에 대한 열등감, 허약한 체질에 대한 우울함으로 인한 자의식이 그의 문학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천재시인 이상이 남긴 시는 현대문학 80년사에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3. 오감도 '시 제1호' 고찰과 표현주의의 특징

<오감도>는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7월24일부터 8월8일까지 연재하다 독자들의 비난에 의해 중단된 총 15편의 연작시 표제이다.(김동근, 2001)

이상 시의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적 기호 해석의 다양성은 열려있는 텍스트이다.

본 연구자는 이어령의 해석에 따라 <오감도>란 까마귀와 같은 눈으로 높은 곳에서 인간들의 삶을 굽어본다는 뜻으로 연구의 바탕을 삼고자 한다.

<오감도>의 텍스트 체계는 일반적인 시 창작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기호적 논리에 의한

대칭과 병치, 나열 이러한 기호들을 시각적으로 조합하여 구도적 의미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오감도>의 시적 의미는 그 기호들로 구도화된 텍스트의 체계 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이며, 육체의 눈이 아니라 자의식의 눈으로 그려낸 시각예술이라는 점이 <오감도>의 텍스트성이라 할 수 있다. (김동근,2001)

이상은 불길하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오감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시적분위기를 예고하고 있으며, 불우하고 허약한 그의 삶에 깔려있는 현실과 죽음에 대한 자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이상의 시는 언어를 통한 현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나 예술의 상징적 중재가 아닌 시각적 형상을 통한 의미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언어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의 시각적 형상 언어들은 단순한 현실의 제시라기보다는 시각적 형상을 통한 새로운 시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박승희, 2006)

3.1 '시제 1호' 해석

이상의 시 세계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문학세계에서 보여주지 않는 양식을 띄고 있다.

시(詩) 제1호

13인의아해(兒孩)가도로로질주하오
(같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

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이상 전집 (김중년, 2004, 가람기획)

이 시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로 나뉜 채 반복되는 시적 어구로 이어져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13인의 아이는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질주하고 있다. 식민지의 경험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시작된 근대 속에서 우리는 성인이 아닌 아해(兒孩)이며, 이 '아해'들이 구성하는 것이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다. 김홍중, 2005)

13인의 아이가 모두 무섭다고 반복하여 말하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13인의 아이들이 질주하는 도로는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는 절망적인 공포 속의 도로이다. 13인의 아이가 질주하는 도로는 암울한 현실 속에 펼쳐진 시인의 자의식이 받아하는 곳이며, 막다른 골목이라도 적당하다는 표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사회적 풍경이다.

시적 맥락에서 보면 13이라는 숫자는 '무섭다'는 것을 열 번 이상 반복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제1의아해'부터 '제10의아해'가 무섭다고 외치는 것은 하나의 연으로 처리하고 '제11의아해'부터 '제13의아해'까지는 다른 연으로 처리함으로써, 10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미숙, 2006)

혼자만이 아니라 다수의 공포가 가져다주는 시적 효과는 읽는 이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켜 준다. 시 제1호는 23행 중 18행에 걸쳐 '무섭다'라는 시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반복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상성에 대한 파괴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13명의 아이들의 외침이 동일한 표현구조와 동일한 통사구조를 지닌 문장을 통해 13번 이어지는 과정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점 점 가까이

다가오는 공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미숙, 2006)

결국 '13인의아해'는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주체성 불투명한 다수의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시적 표현장치로 볼 수 있다. 13인의 아이들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질주하는 듯한 조형성, 이러한 시형식이 근대인, 식민치하의 근대인의 고뇌와 방황,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켜준다. (정끝별, 2009)

오감도 '시 제1호'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다가 오는 공포를 표현함으로써 암울한 식민지 시대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사회적 상황은 불안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동시대인이 느끼는 공포, 우울의 이미지와 닮아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세계경제의 불황,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독자들은 이상의 시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간접 체험하게 된다.

3.2 표현주의 배경과 특징

표현주의는 20세기 초 모든 예술 활동에서 전 반적으로 나타난 개념으로 미술사 중 정확히 정의되기 어렵다.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일어났으며 특정 양식으로서의 표현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와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김건아, 2011)

서구유럽은 19세기말 세기말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불안감과 다가올 20세기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자아의 영혼과 주관적 표현을 중시하는 표현주의가 새로운 예술경향으로 발달하게 된다.

표현주의 회화는 야수파와 맥을 함께 하는데 야수파가 파리에서 프랑스적 지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프랑스 화가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데 비해, 표현주의는 그 시초가 독일을 배경으로 하는 운동이며 표현주의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05년에서 1908년 독일문

학과 회화분야로 부터라고 일컬어진다. (이승현, 2004)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술조차 획일화 되는 현대 기술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성적인 표현보다는 자아의 본능에 충실하고자 했다.

표현주의의 특징은 현실의 재현적 묘사나 시각적 흥미와 같은 현상의 외면보다는 사물의 의미, 본질의 직접적인 표현, 화가의 내부 생명, 자아의 주관적 표현을 추구하는 '감정 표현의 예술'이라는 점이고 표현주의는 평면적인 구성과 강한 대비를 통한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는 경향을 가진다. (김건아, 2011)

표현주의 작가들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전통적인 미의 개념을 무시하고 자아의 의식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강렬한 색채와 왜곡된 형태를 추구한다. 이는 20세기 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이며,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기대감과 불안감에 대한 솔직한 자기표현이다.

4. 이상 시에 나타난 표현주의

4.1. '시 제1호' 나타난 불안, 공포 이미지의 표현주의적 성격

앞서 살펴 보았 듯이 표현주의는 자아의 내면세계를 중시하고 개인의 감정 표출에 주안점을 둔 미술사적 흐름이다. 19세기말적 불안감과 20세기 초의 산업화, 기술화, 도시화에 따른 기대감이 공존했던 시대에 나타난 예술 양식으로서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참혹했던 현실과 일분을 통해 들어온 신문명에 대한 동경으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과 불안, 공포를 시로 승화한 이상의 문학에서도 그 흔적이 나타난다.

이상은 전후의 혼란과 세기말적 분위기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했을 뿐 아니라 당대의 모든 작가와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창작을 했으며, 그에 따른 양상을 극복과 반영으로 나타냈다. (윤수하, 2006)

이상은 불우하고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과 병약했던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시적 어구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다. 띄어쓰기를 무시한 그의 파격적인 글쓰기 양식이나 다양한 언어적 유희와 시각적 형상을 통한 시적 기능은 과감함 색채 사용과 왜곡된 형태를 보여줬던 표현주의 양

식과 상호적이다. 현실과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가 자의식에 깔려 있던 이상의 작품은 세기말적 우울과 20세기 초 비약적인 발전에 불안과 공포의 이미지를 그려냈던 표현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세기 초 인간의 자아를 분열 상태로 이끈 요소는 1차 세계대전 만이 아니다. 대도시, 자아의 사물화와 사물의 의인화, 기계문명, 속도, 매스미디어, 역사적 허무주의와 비평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나열해 볼 수 있다. 20세기 초 정신과 영혼을 비롯한 인간의 절대적 가치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고 강렬한 내면 표현이 당대를 사는 예술인의 소명과제가 되었다.

표현주의의 의미를 찾는다면 내면세계에 대한 진지함이 시대상황을 그려내고 그들의 고통을 진단해낸다는 것이다. 자아분열은 표현주의 예술인들이 가장 첨예한 내면갈등의 표현이자 무기였다. (윤수하, 2006)

'시 제1호'에서 13명의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막다른 골목길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13이라는 불길한 숫자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이미지이다.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오는 불길한 이미지는 표현주의 시대적 배경에서 오는 불안, 공포 이미지와 같은 것이다.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공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과 기대속에서 무너져 가는 자아의 존재감 상실에 대한 불안감의 연속이며, 급속하게 발전하는 20세기 초 산업화, 도시화에 비판적 시선의 솔직한 표현이다.

표현주의가 제 1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일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당시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기대감과 불안감, 인간성의 파괴, 전쟁에 대한 공포 등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시각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민경, 정경철, 2011)

'13인의아해'가 주는 불안, 공포 이미지의 시적 표현, 즉 두려움에 대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적 어구, 띄어쓰기를 무시한 파격적인 시의 형식에서 표현주의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4.2. 표현주의에 나타난 불안 공포 이미지

20세기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은 인간내부에 알 수 없는 의식세계를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미의 개념을 무시하고 회화의 선이나 형태, 색채, 형태의 왜곡 등을 자신들의 감정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들을 직시하고 인간의 고통, 가난, 폭력 등을 예민하게 통찰하면서 이를 강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김홍섭, 2004)

식민지 시대의 참혹한 현실을 불안과 공포의 시적 어구로 풀어낸 이상의 시와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뭉크(Edvard Munch, 1863-1944), 에른스트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 에리히 헤켈(Erich Heckel, 1833-1970) 등의 작품에 나타난 불안과 공포 이미지를 찾아내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는 표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상의 시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학과 미술을 넘나드는 사과의 유연성을 유도하여 표현주의 시대적 아픔을 현시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1) 뭉크(Edvard Munch, 1863-1944)

뭉크의 작품에는 어린 시절 가난과 자신에게 자주 엄습했던 죽음에 대한 불안한 경험이 잘 나타나 있다.

뭉크 회화의 표현주의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인물표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물표현은 주로 자화상으로 나타난다. 뭉크에게 있어 자화상 시리즈는 삶과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 죽음이 하나의 관념으로 확대하여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이때 생을 향한 불안 극복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 문제는 전 생애를 통해 자기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면모의 내용을 시사한다. (이승현, 2004)

자신 내부의 진실한 고백에 주안점을 둔 뭉크의 작품들은 죽음에 대한 갈등, 불안과 공포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상의 작품 곳곳에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닮아 있으며 인물의 내적 심리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1]의 '병든 아이'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뭉크 자신의 자화성이며 아픈 소녀의 얼굴과 색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가 드러난다.

이상과 같이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뭉크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았으며 가난과 어머니의 죽음, 정신병을 앓고 있던 여동생으로 인한 고통

을 작품 속에 투영한다.

누나와 남동생의 죽음마저 경험한 뭉크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공포에 귀 기울인다.



[그림 1] The sick child, 1866



[그림 2] Death in patient's room

[그림2] '병실에서의 죽음'에서 보여주는 암울한 색채와 닫힌 공간 내에서의 인물 표현은 공포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설정이 막다른 공간에서 무한한 공포를 느끼는 '시 제1호'의 공포 이미지와 닮아있다.

(2) 에른스트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

에른스트 키르히너는 독일 표현주의 화가로 독일 중세의 목판화와 동양의 풍속화에서 받은 영향으로 선과 넓은 평면을 쓰는 화풍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본질적인 영향은 뭉크에게서 받았다. (김건아, 2011)



[그림 3] La tour rouge a Hal

[그림3]의 '할레의 빨간탑'은 전통적인 풍경화와는 다른 파격적이고 거칠며 왜곡된 형태에서 오는 불안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사선으로 이어진 도로는 '시 제1호'의 막다른 골목길을 연상하게 하며 가운데의 검은 탑은 공포로 엄습해온다. 뒤에 분홍빛의 구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멀어져 있다.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 공포이미지를 강렬한 명도의 차이와 과장된 형태를 통해 표현한 키르히너의 작품은 종래의 글쓰기 형식을 무시한 채 띄어쓰기를 생략한 이상의 표현주의적 성격을 느끼게 해준다.

(3) 에리히 헤켈(Erich Heckel, 1833-1970)

독일 표현주의 화가 중 한명인 헤켈은 물질적 삶에 억눌려 살아가는 인간의 고독함을 그의 작품에 투영하였다. 야수파와 입체주의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헤켈은 화려한 색채의 단순한 형태의 풍경화와 불안과 우울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강렬한 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림4] '동기'라는 헤켈 작품의 인물들은 날카롭고 암울하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여 주는데 '시 제1호'의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를 떠오르게 한다. 이상이 시적어구를 통해 불안과 공포의 이미지를 표현했다면 헤켈은 날카로운 선과 인물의 표정을 통해 불안과 공포의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그림 4] siblings

이상이 막다른 골목길에서 13명의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를 반복되는 시적 어구를 통해 식민지시대의 암울한 사회적 상황을 표현하였다면 헤켈은 20세기 초 산업화, 기술화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점점 소외되어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신경질적으로 보이게까지 하는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4.3 이상 시와 표현주의 작품 분석

이상은 3.1운동 좌절 후 식민지체제 속에 전후의 혼란과 세기말적 분위기 속에 갈등하고 이를 문학 속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목소리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표현주의는 기술복제로 예술조차 획일화되는 시대에 반기를 든 예술사조로 이성적 조작보다는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작가 개인의 내부에 깃든 생명, 즉 자아 또는 영혼의 주관적 표현을 중시하여 개인의 감정표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윤수하, 2006)

1930년대 서구문화의 수용이 용이해지면서 예술계는 표현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대상황의 모순을 인간상실이라는 주제로 기계문명에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자아의 본능에 충실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오감도 중 '시 제1호'는 이러한 자아의 본능에 충실하여 식민지 시대의 공포와 불안을 과감한 시적 형식의 파괴를 독창적으로 풀어냄으로써 표현주의 성격을 띄고 있다.

20세기 초 정신과 영혼을 비롯한 인간의 절대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고 강렬한 내면표현이 당대를 사는 예술인의 소명과제가 되었다. 표현주의의 의미를 찾는다면 내면세계에 진지함이 시대상황을 그려내고 그들의 고통을 진단해냈다는 것이다. (윤수하, 2006)

5.결론

21세기 현대사회는 사회적 다양한 모순과 경제적 불안,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이라는 공포 등에 한시도 눈을 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상이라는 시인이 느꼈던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과 병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았던 우울은 현시대인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오감도> 중 '시 제1호'의 시적 어구와 띄어쓰기를 생략한 과감한 시적 표현은 19세기 말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20세기 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기대감이 공존하던 시대에 자아로 눈을 돌려 개인의 내면에 주안점을 두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기존의 예술양식에 반기를

둔 표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실과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가 자의식 속에 깔려 있던 이상의 시세계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불우한 삶과 식민지 시대의 참혹한 현실이 그려진 '시 제1호'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적 어구와 띄어쓰기를 무시한 시 형식을 통해 읽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현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 제1호'의 불안, 공포 이미지를 표현주의 회화 속에서 찾아봄으로써 인간 내부의 알 수 없는 자의식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시적 상상력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 표현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였다.

6년의 짧은 시기에 남겼던 이상의 문학 속에서는 비단 표현주의적 성격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형식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문학과 미술을 넘나드는 사고의 유연성과 과거의 시대상으로부터 현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사고의 전환도 할 수 있었다.

이상 시의 「오감도」의 '시 제1호'뿐 아니라 다른 작품도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글 읽기와 다양한 시각적 상상력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의 바람이며 앞으로 미술사적 흐름을 문학에서 찾아 시각적 해석을 통해 하나의 예술형식이 말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미지와 기호로 재탄생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학과 그림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재해석할 수 있게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고의 발상과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동근 (2001). 「오감도」의 작시논리와 텍스트의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15.
- 김홍섭 (2004). 독일미술사, 이유.
- 이승현 (2004). 뭉크 회화의 표현주의적 성격 연구, 『예술연구』, 10.
- 김홍중 (2005). 한국 모더니티의 기원적 풍경,

『사회와이론』, (7).

- 윤수하 (2006). 이상 시의 표현주의 기법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9.
- 한상철 (2006). 이상시의<오감도>시 제1호 분석, 『비평문학』, (24).
- 박승희 (2006). 이상 시의 형상 언어적 의미와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이론과비평』.
- 최미숙 (2006). 이상 시의 심미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9).
- 정끝별 (2009). 이상 시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26.
- 김건아 (2011) 표현주의 미술 작품에 나타난 감성색채 및 구조색 분석, 『한국디자인포럼』.
- 전민경, 정경철 (2011). 20세기 현대미술에서 표현주의와 신표현주의의 연관성, 『한국콘텐츠학회』, 11(2).

